

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 요약>

- 2026.7.15.(수) 조선비즈는 「정부,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‘조건부 인허가’ 검토」 기사에서,
-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, 중국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여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국토교통부 입장>

-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정혁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 임채헌 (044-201-4146)
			주무관 심정찬 (044-201-3934)